

# 原子力産業의 展望은 밝다

## - PA는 短期的 成果보다 長期的 事業 -

### 韓國原子力産業會議 金善昶 副會長과 인터뷰

蘇聯 체르노빌原電事故 이후 國內에서도 原子力發電에 대한 비판적 輿論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原子力産業會議는 그동안 原子力産業에 대한 國民理解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핵심적기관으로서 이 組織을 이끌고 있는 金善昶 常勤副會長을 만나 原子力發電에 대한 國內외의 輿論動向과 反核團體의 活動 및 그에 대처하는 대응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金善昶 副會長은 일찍이 原子力界에 투신하여 韓電의 고리원자력본부장을 거쳐 韓電 부사장과 한국핵연료(주) 사장, 한국전력보수(주) 사장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 原子力界의 선구자이다.



(問) 최근 反核團體의 활동과 原電地域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原子力産業도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答) 1986년 蘇聯 체르노빌原電事故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영향을 받아 反核運動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反核」과 「反原電」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기의 개발과 원자력산업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反核團體에서는 이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의 제조나 실험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原子力의 平和의 利用까지 배척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조직이 커지고 이들의

주장이 일부 原電地域 住民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으로까지 波及 되었던 것은 최근의 民主化 바람과 言論의 보도경향이 다소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原子力産業界에 큰 부담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原子力産業은 국가의 먼 훗날을 내다 본 장기적사업인 만큼 약간의 걸림돌이 있다고 하여 주저앉거나 망서릴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중단없이 計劃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 課程에서 國民의 理解와 協助가 따를 수 있도록 弘報業務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問) 韓國原子力産業會議는 그동안 原電에 대한 國民理解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答) 1986년에 韓國原子力産業會議내에 弘報委員會가 설치되고 '87년에는 사무국에 弘報部를 설치하여 原子力에 대한 PA業務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原子力發電에 대하여 一般國民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계몽활동입니다. 그외에 地域住民에 대한 것이나 企業活動과 직결되는 사항은 각기 해당기관과 기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PA業務를 시작한지는 겨우 2~3년에 불과합니다만 그동안 쌓은 실적과 경험은 적지 않습니다. 책자 발간만해도 64종에 이릅니다. 그중에는 성인용 소설도 있고 학생용 만화도 있습니다. 해마다 文化映畵를 제작하여 전국 극장에 상영하였으며 VTR 테이프를 제작,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토론회와 지방순회설명회도 가졌고 輿論指導層을 위한 原電視察과 懇談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를 위한 강습회를 열고 있으며 학생을 상대로 한 작문현상모집과 사생대회, 포스타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言論媒體의 활용을 위해 言論人懇談會 등을 통한 理解增進에 힘쓰고 있으며 방송출연, 칼럼기고, 독자투고를 권장하는 한편 신문, 잡지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新聞廣告 대신에 지하철 광고등 새로운 아이템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너무 성급히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PA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事業이며 그 결과도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을성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問) 原子力産業會議에서는 輿論調査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原子力에 대한 國內外的 輿論動向은 어떻습니까?

(答) 世界の輿論은 대체로 최근 電力需要가 늘고

화석연료로 인한 公害問題가 지적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인 原子力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國內輿論은 다소 뒤지고 있는데 '89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原電의 계속 건설을 지지하는 율이 58.1%, 반대가 34.4%, 모르겠다가 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지율이 반대율을 앞서고 있으나 '86년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율 77.4%에 비하면 찬성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체르노빌事故 이후 세계적인 反原電 輿論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問) 우리나라는 현재 영광원자력 3·4 호기가 건설중이고 앞으로 월성 2호기와 그밖에 13, 14 호기도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原子力産業의 展望은 어떻습니까?

(答) 앞서서도 말했지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에 필요한 電氣에너지를 확보하는 길은 이미 정해진 政府의 電源開發 計劃에 따라 설비를 확충해 나가야 하겠지만 자원의존형 에너지보다는 기술의존형 에너지 쪽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人力資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原子力에 대한 技術自立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原子力은 적은 연료로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연료비의 비중이 극히 적은 에너지源 입니다. 따라서 原電에 대한 技術自立이 이루어지면 國産 에너지가 나오게 되므로 資源確保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原子力은 굴뚝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環境汚染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을 保全하기 위해서는 原子力發電이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라는 것이 보편화된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광 3·4호기를 통하여 原電技術을 자립하고 한국형 원자료를 완성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욕에 찬 計劃이 진행되고 있어 그 展望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